# 펜화로 법당 짓던 김영택 화백 永眠

〈영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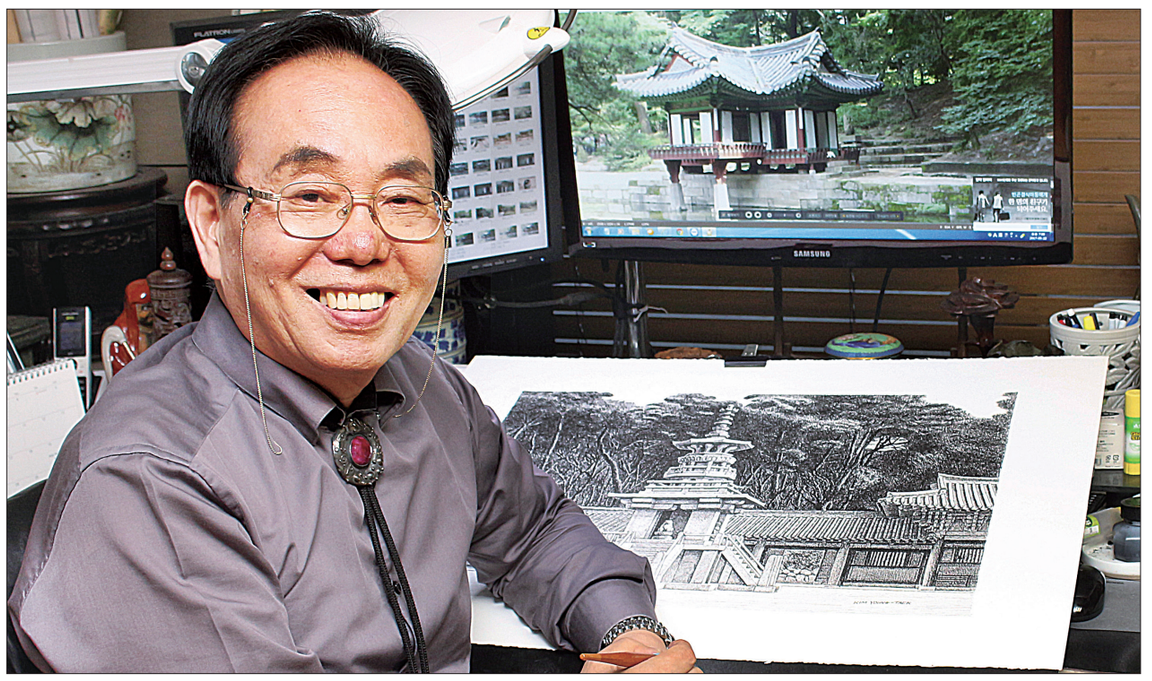
한국의 불교건축을 비롯한 전통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펜으로 그려온 펜화가 김영택 화백이 자신의 화업 30년을 결산하는 특별 개인전을 일주일 앞두고 1월 13일 지병으로 타계했다.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영택 펜화전'은 예정대로 열린다.

향년 76세로 세연을 접은 故 김영택 화백은 통도사 대웅전, 미황사 대웅전 등 한국의 불교 건축문화재와 종묘 정전 등 한국의 전통건축문화재를 면밀한 고증을 거쳐 자신만의 고유한 펜화기법으로 그려냄으로써 한국미술사에 '펜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으며, 자신의 그림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왔다. 단순히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은 그의 업적은 본고장인 유럽의 펜화를 넘어서 한국적 펜화를 재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밀하게 묘사된 그의 그림은 예술적 가치와 더불어 '기록'이라는 가치를 더해 또 하나의 문화재로 평가된다. 김 화백은 그동안 300점이 넘는 펜화를 그렸으며, 그 중 절반이 불교건축문화재다.

김 화백이 펜화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의 나의 50세 때다. 홍익대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한 김 화백은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거쳐 종합 디자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인정받은 디자이너였다. ITC(국제상표센터)에서 선정한 '디자인 엠배서더'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른바 잘 나가는 디자이너였던 그가 펜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1994년 프랑스 고서점에서 우연히 보게 된 펜화 때문이었다. 그 때 그는 우리 전통건축물들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의 펜화는 시작됐다. 스승도 없고 교재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유럽을 넘어선 새로운 펜화로 세계무대에 우뚝 서고 싶었다. 스스로 기법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도구와 재료까지도 직접 고안해냈다. 김 화백의 펜화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당시 그의 그림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다.

**1월 13일 오후 지병으로 타계**
**예정된 개인전 예정대로 열려**
**펜화로 불교 건축 150점 남겨**
**유럽 넘어선 한국적 펜화창조**
**새로운 원근법 정교함의 미학**

**2019년 초 처음 암 진단 받아**
**치료 중단하고 미황사서 정진**
**매일 새벽 응진전서 백팔배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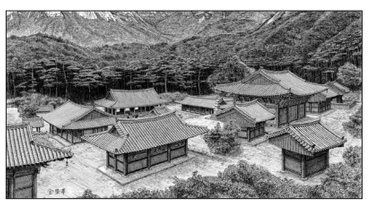
김영택 화백은 그동안 300점이 넘는 펜화를 그렸으며, 그 중 절반이 불교건축문화재다.



미황사 대웅전



통도사 금강계단



금강산 신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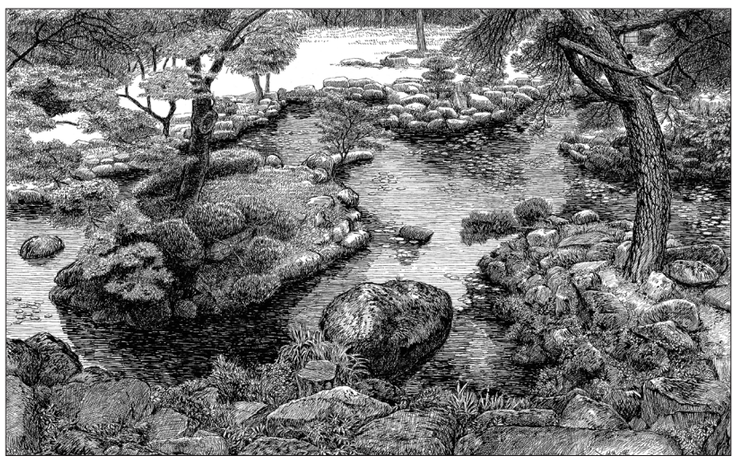
김 화백의 펜화가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통도사 캘린더를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펜화를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을 때였다. 김 화백은 통도사를 보는 순간 통도사를 그이 지닌 미학의 차원을 새롭게 끌어올렸다. 특히 김 화백만의 독특한 원근법은 서양화에서 볼 수 없는 원근법으로 김영택 펜화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남 미황사'는 그의 원근법이 만들어낸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김 화백의 펜화는 정성과 끈기로 그려야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김 화백은 평소 그림 그리는 일 자체를 '수행'이라고 했다.

김 화백은 펜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불교와 가까워졌다. 김 화백과 인연이 깊은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김 화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삼배도 할 줄 몰랐고, 절집에서 공양하는 것도 몰랐어요"라고 말했다. 금강 스님은 1996년 여름 어느 날에 김 화백을 처음 만났다. 절 마당에서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이가 김 화백이었다. 금강 스님은 김 화백에게 차 한 잔을 내며 이것저것 절집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해주며 인연을 만들었다. 그 인연은 김 화백이 생사의 경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깊은 인연이었다.

김 화백은 2019년 초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20개월 시한부였다. 김 화백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 5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항암치료를 중단했다. 소식을 들은 금강 스님이 김 화백을 미황사로 불렀다. 김 화백은 미황사에 머물면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응진전에서 백팔배와 기도를 올렸다. 스님이 추천하는 음식만 먹었다. 그렇게 몇 달을 살았을 때였다. "진실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김 화백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날아왔다.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김 화백의 부풀었던 배가 줄어들고 몸도 가벼워져 뛰어다닐 수도 있게 되었다. 김 화백은 다시 펜을 잡을 수 있었고 미황사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초 병세가 다시 악화되어 김 화백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또 한 번의 기적이었다. 김 화백은 그렇게 기적에 기적을 이어가면서 펜을 잡았다. 하지만 얼마 전 대장암이 재발해 다시 힘겨운 투병을 시작해야 했고 힘겨움 속에서도 어렵게 성사된 개인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했다. 개인전을 앞두고 김 화백은 "다시 일어나 펜을 잡겠다"고 의지를 보였었다.

고인의 빈소는 인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월 15일 오전 5시 30분이다.

## 유고전 된 '김영택 펜화전'



김영택 作, 해남 대흥사 무염지.

**인사아트센터, 1월 20일~2월 15일**
**30년 결산의 개인전이 유고전 돼**
**대흥사 무염지 등 40여 점 선보여**

1월 13일 타계한 김영택(1945~2021) 화백의 개인전이 예정대로 열린다. 가나문화재단(이사장 김형국)은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김영택 펜화전'을 개최한다. 김 화백의 대표 펜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해남 대흥사 무염지를 비롯해서 로마 콜로세움, 일본 나라 도다이지 대불전, 돈의문, 영은문 등 한국 사찰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재 30점, 그리고 한국 문화재 복원화 10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김 화백이 타계 직후 열리는 전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김 화백은 개인전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지병인 대장암으로 타계했다. 특별 개인전은 유고전이 됐다.

이번 전시는 김 화백이 재발한 대장암으로 다시 투병을 시작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이 우리 미술사에 펜화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한 시대의 작가를 기리고 위로하고 싶은 취지를 가나문화재단이 받아들임으로써 열리게 됐다.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전을 열게 된 김 화백은 생전에 "힘든 상황에서도 개인전을 마련해준 가나문화재단에 감사하다.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살아 있는 동안 끝까지 펜을 놓지 않겠다"며 "다시 일어나 화가로서의 길을 걷고 싶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화백의 펜화는 고유한 원근법으로 한국적인 펜화를 재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화백의 원근법은 사람이 바라보는 대상과 카메라가 기록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 사람의 시각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원근법이다. 먼 곳은 작게, 가까운 곳은 크게 그리는 서양인들의 정확한 원근법이 '본다'라는 적극적 의미의 인간 중심 시각이라면, 김영택 원근법은 '보인다'라는 대상 중심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피사체를 더 잘 보이게 표현하여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닌, 사물을 위한 그림이 되는 것이다. 김영택 원근법은 동양의 원근법과 유사하며 작가의 작품에서 한국화의 감성적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까닭이다.

박재완 기자


#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통신교육 3개월과정(제5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녹음강의 통신교육으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내 용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0년 12월 7일부터 3개월**
- 교육방법 : ① 의식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보급합니다.
② 강의 내용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배부합니다.
③ 교육관련 궁금한 내용은 전화 질의 상담으로 지도합니다.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의식방법으로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